Kodex 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WEEK 05
OCT 2024

Executive Summary

- 시장 금리 속등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홀로 7주 연속 상승 랠리 지속
- 월말/월초 주요 지표 공개 예정: **장기물 금리 상단 확인 여부가 중요**
- 대선(5일), FOMC(7일) 확인 후, **엔비디아 실적(14일)까지 숨고르기 예상**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테슬라 호실적에 힘입어 나스닥 홀로 7주째 상승

지난주 S&P500과 다우지수는 하락 전환한 반면 나스닥은 7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테슬라가 5개 분기 만에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24일 하루 만에 22% 급등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에 재정 적자 우려가 심화되며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5.6bp, 15.7bp 속등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 기준 104.3pt로 마감해 5주 연속 상승했다.

월말/월초 지표 공개: 장기물 금리 상단 확인 여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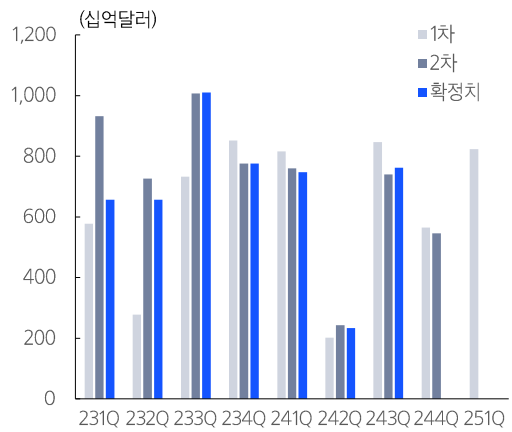
이번 주는 미국 3분기 GDP 속보치와 재무부 국채 만기별 발행계획(10/30, 현지시간), 9월 PCE 물가(10/31), 10월 고용보고서와 ISM 제조업 PMI(11/1) 등 다수의 지표들이 공개된다. 일본중앙은행(BOJ)의 금리 결정과 전망 보고서 수정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한편, 28일 공개된 재무부 자금조달계획서(QRA)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차입 추정치는 기존보다 190억 달러 하향 조정된 5,460억 달러로 확인되었으며[그림1], 최초로 공개된 내년 1분기 차입 추정치는 8,230억 달러로 4분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규모이나 1분기 계절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은 규모라는 평가에 금리 변동성은 제한됐다. 단, 30일 발표되는 국채 만기별 발행계획(TBAC)에서 장기물 발행 물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을 경우 금리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

M7 중 5개 기업 실적 발표: CAPEX 가이던스 예상 상회 여부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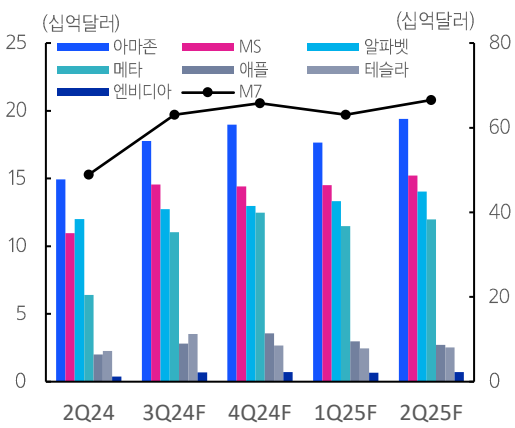
한편, 이번주에는 알파벳(10/29), 메타, 마이크로소프트(10/30), 애플, 아마존(10/31)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의 CAPEX(자본지출) 가이던스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갈릴 수 있다[그림2]. 무엇보다도, 다음주에는 미국 대선과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지수 방향성 베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1]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 자료 : Department of Treasury, 삼성자산운용

[그림2] M7 CAPEX(자본 지출) 예상 추이



※ 주: CY 기준. 24Q3F 테슬라는 확정치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삼성 Kodex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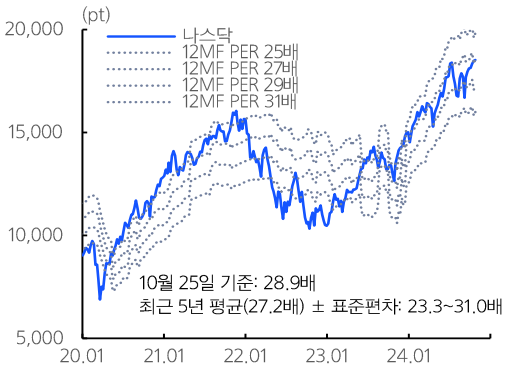
당분간 빅테크 중심 압축 포트폴리오 대응이 유리할 전망

증시는 미국 대선 결과(5일)와 11월 FOMC(7일) 확인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14일)까지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FOMC를 앞두고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내 2번의 인하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경계 요인이다. 당분간 지수 상승 추세에 베팅하기 보다 빅테크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게 유리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그림3].

신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테슬라에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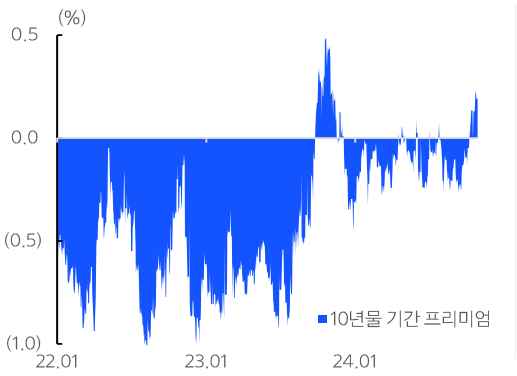
지난주 시장 금리 속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등을 비롯해 실적 호조를 기록한 기업들은 강세를 시현했다.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그림4]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상쇄할 성장률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선 선거 결과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와 세액 공제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자동차 외 에너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있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경우, 동사와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3] 나스닥 밸류에이션 차트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10년물 기간 프리미엄 추이



※ 자료 : NY Fed,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미국나스닥100 데일리커버드콜OTM (종목코드:494300)

 # 나스닥100 데일리 1%OTM 콜옵션 100% 매도 전략 월배당 ETF
- 매일 1%까지 시장 상승 참여 + 옵션 프리미엄 수취 추구
- 연간 분배한도 최대 20%(월간 1.67%), 옵션 프리미엄 분배한도 초과분은 재투자
- 총보수 : 연 0.25%(운용 0.21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02 Kodex 미국서학개미 (종목코드:473460)

 # 서학개미 보관금액 기준 상위 25개 종목에 모두 투자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미국 빅테크,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 및 산업 트렌드 선도 기업에 투자
- 주요 투자 대상: Nvidia, Tesla, Apple, Microsoft, Alphabet, IonQ 등
- 총보수 : 연 0.25%(운용 0.21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03 Kodex 테슬라밸류체인FactSet (종목코드:459560)

 # Tesla(최대 25%)와 Tesla 핵심 밸류체인 25개 기업에 모두 투자
- 핵심 밸류체인 : 2차전지 배터리, AI반도체, 운전보조시스템(ADAS)
- 주요 투자 대상 : Tesla, Nvidia, CATL, NXP Semiconductor, AMD 등
- 합성총보수 : 연 0.3422%,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2195%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